

국제 금융 위기 - 중국 경제에 미치는 파문 심각

현재 중국 경제는 발전하는데 있어 여전히 많은 불확정적인 요소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금융 위기는 매우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어, 글로벌 실체 경제(global 實體 經濟)에 주는 충격(impact)은 더욱 분명하여졌다. 중국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中國 國家 發展 改革 委員會)는 “국제 경제 금융 환경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경제가 쇠퇴해 가는 압력은 커지고 있다. 이는 경제를 이끌고 가는데 있어서 주요한 모순이다.”고 지적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중국 중앙 정치국 회의(中國 中央 政治局 會議)의 분석에 의하면, 국제 금융 위기에 의한 중국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더 분명하다. 중국 경제 사회의 발전에서 일부의 모순은 더욱 눈에 띈다.

중국 경제 발전의 외수(外需 : 외국으로부터의 수요)는 분명히 줄고 있다. 구미(歐美), 일본과 같은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partner)의 경제가 침체되어, 수출입 무역 의존도(輸出 輸入 貿易 依存度)가 70%나 되는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어, 중국 국내의 많은 수출 기업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세관 총서(稅關 總署)의 통계를 보면, 2008년 1~10월에 이르는 중국 수출 성장률(中國 輸出 成長率)은 2007년의 동기를 4.6포인트 밀돌았다. 그 중에, 구주 연합(歐洲 聯合 : EU) 및 미국으로의 중국 수출 성장률은 2007년 동기보다도 각기 6.2 포인트와 4.1 포인트를 밀돌았다. 많은 수출 기업에게 주문이 줄어 생산 규모가 감소한 것은 공동 문제가 되었다. 중국 국제 경제 연구회(中國 國際 經濟 研究會)는 “당면한 구미 경제의 동향으로 봐서 외부 수요에는 여전히 불확정성(不確定性)이 있다. 중국의 대외 무역 수출 정세(對外 貿易 輸出 情勢)는 계속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하였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중국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베이징(北京) 대학 국민 경제 핵산 중심(國民 經濟 核算 中心)의 연구원(研究員)에 의하면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현재 중국의 노동 집약형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점차로 약해지고 있다. 일부 산업은

국제적으로 분업하고 있으며, 산업을 이전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발전 방식이 치밀하지 못해 오래전부터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되어 왔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중국 경제의 발전은, 주로 노동력 우위성과 상대방 브랜드에 의한 제조나 중화학 공업에의 투자와 확장에 의존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모델은 장기적으로 발전해낼 잠재력이 부족하다. 국제 금융 위기가 발생하여 이와 같은 모델의 잠재적인 결점이 드러난 것이다.”고 보고 있다.

중국 경제의 경기 체감 지수(景氣 體感 指數 : 경기의 동향에 관한 느낌을 나타내는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국가 통계국(國家 統計局)의 최신 감시 데이터(最新 監視 data)에 의하면, 중국 매크로(macro : 巨視的) 경제의 경기 체감 지수는 안정된 영역에 있었는데, 2008년 6월부터 중국 경제의 경기 체감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100을 넘는 레벨로 하는 매크로 경제의 경기 체감 지수는 5월에 117.3에서 10월에는 94.7로 떨어졌다. 그중에서 공업 생산 지수는 이미 다 식어버린 낮은 영역에 있다.♣